

장 폴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축복으로서의 자유와 저주로서의 자유

글_박이문(연세대 특별초빙교수·철학자)

20세기 중반을 지배한 인문학적 사조가 실존주의(Existentialisme)라는 새로운 철학 사상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실존주의의 대명사인 사르트르라는 사실에 이의를 던질 이도 없다. 사르트르는 소설가이자 희곡작가, 문학평론가이자 문화 평론가, 정치적 논객이자 월간 잡지 출판인이기도 했다. 그는 사상가이자 거리에 나선 정치 운동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먼저 철학자였다. 그의 실존주의 철학의 내용은, 대중을 위한 강연원고를 1946년 출판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저서를 비롯한 그의 수많은 문학적 저서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초기 저술인 1943년작 《존재와 무》를 읽지 않고는 그의 사상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

실존주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철학적 인간학(philosophical anthropology)이다. 인간을 다양한 면에서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심리학적, 문화적, 고고학적, 역사적, 생물학적 탐구들을 과학적 인간학이라 한다면, 철학적 인간학은 인간 '본질'의 발견, 더 정확히 말해서 '인간'이라는 낱말의 '개념'을 해명하는 작업이다. 과학적 인간학이 인간을 유전인자 DNA의 특수한 배열의 환원으로, 한걸음 나아가 그 DNA 미립자로의 환원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철학적 인간학은 인간과 그 밖의 동물을 근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속성의 개념을 찾고자 한다.

이런 차이는 오래 전부터 동서문화권에서 동시에 존재했다.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주의, 기독교의 창조론, 헤겔의 관념적 정신론 등에 나타난 서양 종교 및 철학의 인간론이나 힌두교·불교, 공자의 천명론(天命論)과 같은 동양적 인간 철학, 또한 데카르트, 흄스의 근대철학적 인간학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철학적 방법론이 그 근거가 희박하고 사념적인 것과 달리 사르트르의 방법론은 현상학적이다. 절대적 진리를 탐구하는 인식론으로서 후설이 개발한 현상학은 데카르트의 경우와 같이 인식주체의 대상에 주관적 경험의 반성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대상의 관념적 '본질'을 발견하는 방법론이다. 현상학적 인식방법은 과학적 인식방법의 경우처럼 환원적이지만 전자의 환원이 경험대상으로서의 물리적 현상에 맞추어진 데 반해서 후자의 환원은 경험주체로서의 주관적 경험에 반성적으로 도달한 관념에 맞추어진다.

사르트르의 현상학적 분석에 의하면 우주의 모든 것은 그의 책 이름이 명시하듯이 '의식'과 '그의 대상으로서 모든 것'을 양분하고, 전자는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는 속성이며 후자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사르트르는 그것들



《존재와 무》(전2권)

장 폴 사르트르 지음 | 손우성 옮김 | 삼성출판사
1권 496쪽, 2권 468쪽 | 각권 값 8,000원



● 이 글을 쓴 박이문은

서울대 불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서울대의 초청교수를 거쳐 포항공대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시몬스 대학 명예교수, 연세대 특별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행복한 허무주의자의 열정》(당신에게 철학이 있습니까?) 《과학의 도전, 철학의 응전》 등의 철학서와 《눈에 덮인 찰스 강변》(나비의 꿈) 《공백의 그림자》 등의 시집이 있다.

을 각각 직자(etre-en-soi)와 대자(etre-pour-soi)로 부른다. 직자의 본질이 외적 조건에 의해 인과적 법칙에 따라 수동적으로 존재하고 작동하는데 반해서 대자는 외부로부터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되어 수동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내적 자유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반성적 존재이다. 직자와 대자 간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존재론적 차이는 전자가 속이 꽉 차있는 '유'(有)로 존재하는데 반해서 후자가 속이 텅 비어있는 '무'(無)의 구조를 갖고 있는 사실과, 따라서 전자가 아무 부족도 느끼지 않는 언제나 만족된 상태로 존재하는 반면 후자는 언제나 무엇인가가 빠져있어서 부족을 느끼고, 항상 그 부족감을 충족시키려는 불만족한 결핍된 상태로 존재한다.

인간의 본질이 의식에 있고, 의식의 본질이 필연적으로 자유롭지만 그만큼 무엇인가가 빠져있어서 불만스러운 상태로 밖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 동시에 저주일 수도 있음을 함축한다. 왜냐하면 자유는 언제나 주체의 선택을 요구하고, 그러한 자유는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함축하고, 이러한 책임은 '심한 불안'(angoisse)과 그러한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욕망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대자 즉 의식으로서의 인간이 이런 불안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직자 즉 그냥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동물 혹은 그냥 물질로 변신하는 일이다. 인간의 꿈은 개구리나 강 등과 같은 그냥 존재, 직자로서의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러한 직자적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존재에 동반되는 만족감, 부족함 없는 충만감, 행복한 자신의 경험이다. 그러한 자신의 경험은 자신이 그냥 직자 즉 의식이 없는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대자 즉 경험의 주체와 의식적 존재로서 남아 있음을 논리적으로 전제한다. 그렇지 않고는 자신이 원하는 만족한 상태의 경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직자인 동시에 대자로, 대상인 동시에 주체로, 물질인 동시에 의식으로, 인과적 결정론에 묶인 동시에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존재,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 즉 절대적으로 완전한 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존재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두 가지 존

재들 즉 대자와 직자, 의식과 그 대상은 서로 모순된 개념이므로 그 두 존재가 합쳐진 존재론적으로 완전한 존재, 절대신으로서의 하느님은 존재할 수 없다. 사르트르의 말대로 인간의 궁극적 욕망은 헛된 것이고, 그럼에도 그런 꿈을 버릴 수 없어 애쓰는 "인생은 헛된 수난"이다.

그의 실존주의 철학이 알려졌던 초기부터 적지 않은 철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사르트르의 철학은 현란한 아이디어와 논변의 재치 있는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세기 이상 발달해 온 과학적 성과를 전혀 참작하지 않았다는 비평을 받을 수 있다. 과학과 철학은 다른 차원의 담론이지만 그것들 간에 모순이 있는 과학이든 아니면 철학이든 적어도 둘 중 하나의 이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원론적 형이상학을 전제하는 사르트르의 인간관은 진화론적 인간관, 분자생명공학이 보여주는 인간관, 그러한 과학적 인간관에 깔려 있는 일원론적인 유물론에 배치된다. 과학적 인간관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면, 철학적 인간관은 전자의 인간관과 거기에 깔려 있는 일원론적 유물론의 형이상학을 자신의 체계 속에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적 인간학만큼 선하면서도 재미있고, 깊이 있으면서도 일관성 있게 내가 관찰하고 경험했던 인간과 그들의 심리상태에 관한 설명을 나는 아직 접해 보지 못했다. 그의 철학적 인간학은 우리가 개인적 및 집단적 차원에서 주관적으로는 체험하고 객관적으로는 관찰하는 섹스, 사랑, 쾌감, 식욕, 지식욕, 소유욕, 줄도, 기절, 자부심, 수치심 등과 관련된 심리와 행동의 결과는 다른 깊은 '실존적' 의미를 발견한다. 적어도 나의 경우는 그러했고 그의 철학을 만난 지 반세기가 넘고 그동안 다른 많은 과학적 인간학과 철학적 인간학을 접해 왔지만 지금도 나는 사르트르만큼 생생하게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의 실존적 고통과 환희 및 그러한 경험들의 의미"를 설명한 이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